

## 부부생활이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일상생활만족도,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를 중심으로

김재엽·김희수\*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요인에 대해 밝힘으로써, 자녀 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인지하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각각은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이 아버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폭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및 부부의사소통은 어머니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정도는 역시 어머니의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폭력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모양자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폭력 문제에 개입할 때 부부일상생활만족

---

\* 김재엽(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희수(연세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도를 증진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개입과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기술을 향상하는 개입이 이루어질 때, 자녀폭력 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리라 보고 본다.

## 1. 서 론

### 1) 문제제기

최근 가정폭력문제 중 자녀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학대 사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신고접수 통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1월 11일 전국 18개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접수된 학대 건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97년 807건, 98년 1,283건, 99년 2,155건에서 2000년 11월말까지 4,200여건이 접수되었음을 보여주었다(문화일보, 2001년 1월 11일자). 이는 매 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배 이상 급증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곧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신고건수뿐 아니라 실제 학대 발생률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1987년 김광일과 고복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 1,142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1년에 12회 이상 부모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하는 자녀가 8.2%, 그리고 그보다 덜한 정도지만 구타를 경험한 자녀가 50.8%라고 보고하고 있다. 1995년 홍수진 등에 의하여 대구, 구미, 삼천포의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84.6%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 김재엽이 실시한 전국조사에서는 부모의 79.8%가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엽, 1998(a)). 김재엽의 연구결과는 가해자인 부모가 조사대상이 된 것으로, 실제보다 자녀학대의 발생빈도를 축소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적어도 8명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대 경험은 아동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대 이후 초래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다(김광일, 1986). 또한 성장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 아니라, 아동기 학대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에까지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박은미, 1999). 그리고 학대 경험이나 가정내 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경우 공격행동이 많으며(조미숙, 1998 ; 김재열·정소연, 1997), 성장 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나 아내에 대한 학대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traus, 1978 ; Hilberman, 1980 ; 김광일·고복자, 1987).

이상의 내용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발생은 심각한 수준이며, 그 피해 역시 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단기적인 피해뿐 아니라 성인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녀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자녀폭력의 발생률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거나, 자녀폭력의 원인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는 경우라 해도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 이외에도 부부간의 관계 역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ymonde(1933), Hurlock(1972)에 의하면 부부생활에 있어서의 만족감이 낮고, 갈등이 많은 부부일수록 자녀에 대해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한다고 보고하였다. Gil(1971)과 Friedman(1981)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부모의 싸움이나 결혼생활의 갈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Whipple(1989) 역시 결혼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들도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부부갈등이나 불화가 심한 경우가 자녀에 대한 학대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황영희, 1984 ; 안혜영, 1998 ; 장화정 외, 2000). 하지만 부모의 결혼에 대한 만족이 자녀양육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사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주양육자로 간주되는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자녀폭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피해아동 개인에 대한 접근이나 혹은 어머니만을 주양육자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문제를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부부간 만족이나 갈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경로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자녀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폭력의 원인을 부부관계와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자녀폭력의 주체자인 부모가 인지하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간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힘으로써, 자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접근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폭력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개념정의

#### (1) 자녀폭력

자녀폭력,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혼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자녀폭력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아동학대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2년 Kempe와 그 동료들이 '피학대 증후군' (*battered child syndrome*)을 발표하면서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의 개념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아동의 신체에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아동

학대여부를 판단한다(안혜영, 1998: p.11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대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에 관한 추론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Parke & Collmer, 1975). 이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협의의 정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념으로 Kempe와 Helfer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아동”을 신체적 학대를 입은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학대 행위자의 의도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이외의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개념은 다루고 있지 않다.

반면,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정의에서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개념을 모두 학대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Gil의 경우 아동학대를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는데, 아동학대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의 조건과 개인, 제도, 사회적 행위나 태만”이라고 정의하였다(안혜영, 1998: p.12에서 재인용). 이 개념에서는 가정은 물론 제도 및 사회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 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와 소극적인 방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들을 살펴보면, 역시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황영희(1984)는 “부모나 보호자의 의해 만 19세 이하 아동에게 저질러진, 잘못된 대가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신체적 폭력, 아동 방임, 심리적·정서적 학대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고성혜(1992)의 경우 방임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였으며, 신체적 심리적 학대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 개념을 정의하였다. 한편 이영희(1992)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의 경우 뚜렷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학대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학대의 유형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정의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경우 18세 이상의 자녀 상당수에게도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녀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학대의 여러 유형 가운데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신체적 폭력 행위에 초점을 두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학대 행위자의 의도성과 그 피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학대의 한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녀폭력이란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사회생활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 (2)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이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결혼에 대해 기대했던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양자를 모두 고려한 상황에서 개인이 판단하는 만족정도이다. 여기에는 부부간 권력관계, 부부역할, 그리고 성생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일상생활 측면에서,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만족, 부부간의 취미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만족, 수입에 대한 만족, 성생활에 대한 만족, 부부간 개인생활에 대한 인정, 부부 원가족에 대한 배려 등 매우 구체적인 생활상의 만족정도로 ‘부부일상생활만족도’를 개념화하였다.

#### (3)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은 부부 상호관계에서 각자의 욕구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의사소통은 상호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며 상호이해를 통해 서로를 수용할 수 있고, 결혼생활에의 적응 및 부부간의 친밀함을 만들어 주면서 결혼에 대한 만족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유진, 1999). 김갑숙(1991)이나 최연숙(1999) 등은 무형의 의사소통에서의 불일치로 인해 부부갈등이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Burluson & Denton의 연구에서도, 부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이나 부부갈등을 나타내는 증상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해, 대화시 서로에 대한 경청, 부부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 중요한 일에 대한 의논,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공유로 개념화하였다.

#### (4)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공학이나 물리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과 연결되어 “인간에게 해로운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재엽(b), 1998).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Lazarus & Folkman의 개념으로 “개인의 자원이 모자라서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스트레스로 규정하였다.

즉, 스트레스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stressors)으로서의 스트레스와 증상 혹은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김재엽 외, 1999).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증상 및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개인과 생활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통제 및 능력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증상이나 반응”의 개념으로 보았다.

## 2) 자녀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 자녀폭력 발생이론

자녀에 대한 폭력 발생에 대해 하나의 이론으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사회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회체계이론은 자녀폭력의 발생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즉,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구성원의 수나 가족의 구조와 같은 가족 유형(Pagelow, 1984; Biller & Solomon, 1986), 경제, 교육, 직업,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 요인(고성혜, 1989; 신영화, 1986; Finkelhor, 1980, 1983; Pagelow, 1984), 부부간의 불화나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압박(Browne & Saqi, 1988; Straus, 1980), 그리고 거부장적 특성(Gelles, 1974; Pagelow, 1984) 등을 들고 있다. 즉,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녀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를 구분하고 각 체계간의 상호작용으로 자녀폭력의 발생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Belky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 외계체계, 그리고 거시체계로 구분하였다. 미시체계는 자녀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근접환경으로, 부부간의 갈등, 적응, 권력구조 등이 미시체계에 속하는 관련 변인이다. 외계체계란 인간 및 근접환경을 둘러싼 사회구조로서, 사회계층, 빈곤, 실

업,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이 자녀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변수들이다. 그리고 거시체계의 수준에서 언급되는 체계라 함은 사회제도나 신념과 같은 내용들로, 한 사회내에서 허용되는 폭력과 차별의 수준, 아동관,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것들이다(Belsky, 1980; Bersani & Chen, 1988; Biller & Solomon, 1986).

본 연구에서는 자녀폭력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사회체계이론을 근거로 하여, 사회체계이론에서 언급된 아동 학대와 관련된 변인들 가운데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족유형이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의 경우 개입이나 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인 데 비해,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등은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곧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가장 근접환경으로서 미시체계에 해당된다.

## (2)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Gil(1971)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싸움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Friedman(1981)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결혼생활의 갈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Whipple(1989)은 결혼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들 가운데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낮은 경우, 부부갈등이나 불화가 심한 경우 아동학대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황영희, 1984; 장화정 외, 2000).

다음, 스트레스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Deutsch(1980)와 Calvert(1986)는 자녀폭력을 행하는 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Korbin(1981) 역시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변화순(1988), 김광일·고복자(1989)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학대의 원인이



부모가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자녀폭력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로 성별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American Association for Protecting Children* (1986) 과 Straus et al. (1980), 그리고 김재엽 (1996)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폭력발생을 보이는 데 비해, Bryan and Free (1982), Gil (1970) 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폭력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 교육수준, 직업, 사회계층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고성혜, 1989; 신영화, 1986; Finkelhor, 1980, 1983; Pagelow, 1984) 역시 자녀에 대한 폭력과 관련이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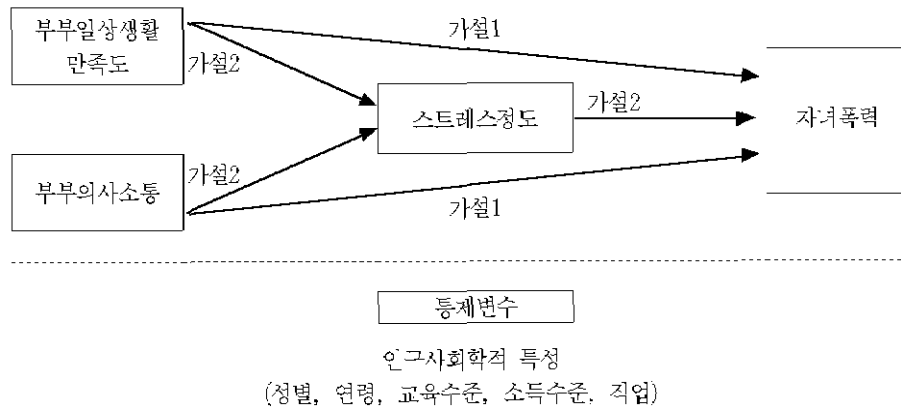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자녀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연구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즉,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자녀폭력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경로(가설 1)와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를 매개로 하여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설 2)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그림 1〉 연구분석틀



### 3) 측정도구

#### (1) 자녀폭력

본 연구에서 자녀폭력은 Straus(1980)에 사용한 CTS척도를 사용하였다. CTS척도 가운데 폭력행동에 해당하는 8문항 가운데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와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세계 밀쳤다'의 세 문항을 제외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②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③ 물건(책대, 몽둥이, 폴프채 등)으로 때렸다, ④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⑤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의 5문항이며, 측정 기간은 조사시점으로부터 1년전까지로 하였다. 응답은 ⑥ 없다, ① 한두 번, ② 3~5번, ③ 6~9번, ④ 10번 이상, ⑤ 20번 이상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5360이다.

#### (2)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일상생활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① 가사를 분담하는 정도에 만족한다, ②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③ 우리부부의 사회적 활동(취미활동 등)에 만족한다, ④ 가족수입에 대해 만족한다, ⑤ 성관계에 만족한다, ⑥ 상호간에 개인생활을 인정해 준다, ⑦ 서로 시가 혹은 처가 식구들을 배려해주는 정도에 만족한다, ⑧ 결혼생

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7836이다.

### (3) 부부의사소통

부부의사소통을 묻는 문항은 ① 우리부부는 이야기할 때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준다, ② 우리부부는 서로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③ 우리부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 충분히 의논한다, ④ 우리부부는 개인적인 일을 다른 사람에 비해 배우자와 더 많이 이야기 한다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역시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부분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7797이다.

### (4)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의 측정은 NeilAbele의 Index of Clinical Stress (ICS) 를 사용하였다. ICS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총 25문항 가운데 1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① 극도로 긴장감을 느꼈다, ②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③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불안하였다, ④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부수고 싶었다, ⑤ 나를 안정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⑥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⑦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다, ⑧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⑨ 너무 공포스러웠다, ⑩ 좌절감을 느꼈다는 총 10문항에 대해 각 문항에 해당하는 경험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물었다. 이들 문항은 특정 스트레스 사건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응답은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①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 ②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 ③ 그런 적이 가끔 있었다, ④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 ⑤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8777이다.

#### 4) 조사방법

##### (1) 표본추출방법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지원으로 1999년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실태 연구의 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 표본추출은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뒤 다단계 집락표본추출법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국의 권역은 서울,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그리고 강원권으로 7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각 권역의 총 가구 비율에 비례하여 추출할 집락수를 결정하였다. 즉, 서울과 인천·경기권에서 각 7개 집락, 부산·경남·울산권에서 5개 집락, 대구·경북권, 광주·전라권에서 각 4개 집락, 대전·충청권에서 3개 집락, 그리고 강원권에서 1개 집락을 추출하여 총 집락 수는 총 31개이다. 각 집락의 표본 가구수는 50가구 내외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일대일 대면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조사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대학원생으로 조사원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실시 기간은 1999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표본추출된 전국의 31개 집락을 대상으로 사전답사 기간을 가진 후, 1999년 8월 14일에서 9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1,540가구이다. 그 가운데, 조사시점에서 결혼상태에 있으며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sup>1)</sup> 따라서 전국조사 1,540가구 가운데, 1,181가구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1)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만 선택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을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연령분포에서 최고연령을 파악하고, 그 최고 연령으로부터 3표준편차 밖에 있는 연령이하의 부모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자녀연령에 무응답한 경우 부의 연령은 43세 이하, 모의 연령은 45세 이하가 포함되었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한 후,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통계분석은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변인들간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성별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한부모 가족에게 까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자녀에 대한 폭력이 조사의 주요 내용이므로, 학대행위자인 부모 입장에서 아동학대 현황을 축소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 연구결과

#### 1) 자녀폭력 실태

우리나라 자녀폭력 실태는 <표 1>과 같다. 즉, 자녀에 대한 전체적인 폭력 발생률은 40.4%로,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4명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전체적인 폭력이라 함은 경미한 폭력이든 심한 폭력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 항목에라도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자녀폭력 발생률

폭력 유형	발생률 (N=1095)
전체 폭력	40.4 % (442명)
경미한 폭력	21.0 % (230명)
심한 폭력	30.3 % (332명)

자녀에 대한 폭력을 다시 경미한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여 보면, 경미한 폭력에 해당하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는 전체의 21.0%였다. 반면, 혀대, 몽둥이, 골프채 등 물건으로 때린 경우,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 칼이나 가위,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30.3%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미한 폭력에 비해 심한 폭력의 발생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폭력발생률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폭력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본 폭력발생률은 <표 2>,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에 의한 자녀폭력 발생에 비해 어머니에 의한 자녀폭력 발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 의한 폭력에 있어서, 전체 폭력의 경우 약 5.5% 포인트 가량, 그리고 심한 폭력의 경우는 약 6% 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주양육자가 어머니이며, 따라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많다는 사실과 연관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면이 아버지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가능성도 그만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아버지에 의한 자녀폭력 발생률

폭력 유형	발생률 (N=405)
전체 폭력	37.5 % (152명)
경미한 폭력	20.0 % (81명)
심한 폭력	26.7 % (108명)

<표 3> 어머니에 의한 자녀폭력 발생률

폭력 유형	발생률 (N=690)
전체 폭력	42.0 % (290명)
경미한 폭력	21.6 % (149명)
심한 폭력	32.5 % (204명)

## 2)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

응답자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66점이며, 3점 이상의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0.8%이고, 2점 이하의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2%였다.

부부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4점 만점에 평균 2.02이며,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대부분 혹은 항상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3점 이상의 사람은 전체의 29.38%, 별로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2점 이하의 사람은 11.1%였다.

다지막으로 응답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87점이며, 전체 응답자의 54.3%가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응답한 2점 이하였고, 스트레스를 자주, 혹은 항상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3점 이상의 응답자는 6.0%에 이르렀다.

## 3)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 간의 관련성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은 비교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일상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의사소통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정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부부의사소통, 스트레스정도의 상관관계

(N = 1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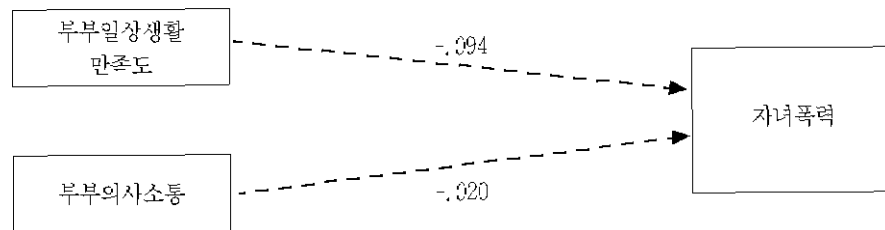
	부부일상생활 만족도	부부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
부부일상생활 만족도	1.000		
의사소통	.522**	1.000	
스트레스 정도	-.333**	-.281**	1.000

2-tailed Sig. : \*\* &lt; .01

4) 아버지에 의한 자녀폭력

먼저,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자녀폭력<sup>2)</sup>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가설 1에 대한 경로모형을, 그리고 <표 5>는 가설 1에 대한 모델 요약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 아버지의 자녀폭력에 대한 경로모형 1



<표 5> 아버지의 경로모형 1에 대한 모델 요약

(N = 441)

F	5.344
Sig.	.000
R <sup>2</sup>	.077
Adjusted R <sup>2</sup>	.063
Std. Error of the Estimate	.4710
통계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 P<.05, \*\* P<.01, \*\*\* P<.001

2) 이후 이루어지는 경로분석에서 사용된 자녀폭력의 값은 자녀에 대한 폭력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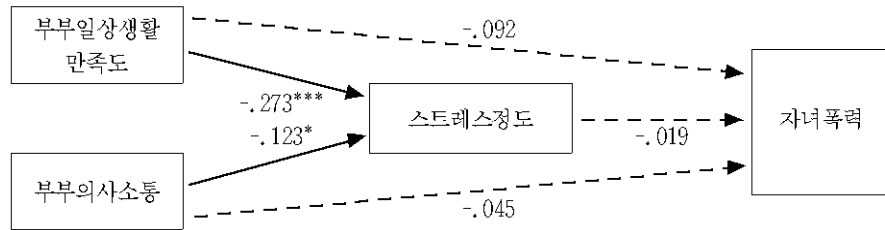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은 5.344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자녀폭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 가운데 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 아버지가 인지하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은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모델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통제변수 가운데 연령이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그림 3〉은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회귀분석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에 있어서 부부일상생활만족도( $P < .001$ )와 의사소통( $P < .05$ )은 모두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들이 부부일상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아버지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정도는 아버지의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모델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은 3.849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아버지의 자녀폭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 가운데 연령( $P < .01$ )과 교육수준( $P < .05$ )이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인지하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모델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 역시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통제변수 가운데 연령 및 교육수준이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아버지의 자녀폭력에 대한 경로모형 II



〈표 6〉 아버지의 경로모형 II에 대한 모델 요약

(N = 441)

F	3.849
Sig.	.000
R <sup>2</sup>	.066
Adjusted R <sup>2</sup>	.049
Std. Error of the Estimate	.8687
통계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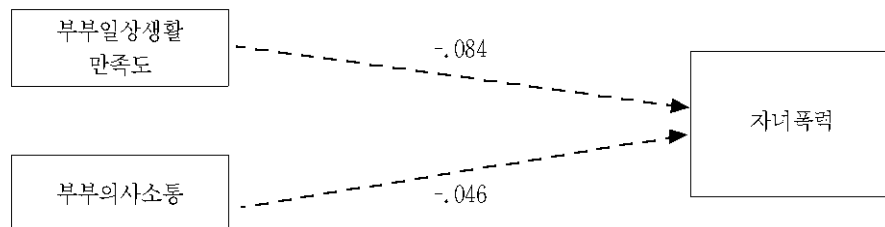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아버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는 아버지에 의한 자녀폭력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가설 1, 2 모두 기각되었다.

5) 어머니에 의한 자녀폭력

어머니에게 있어서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자녀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의 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역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설 1에 대한 경로모형은 <그림 4>와 같으며, 가설 1에 대한 모델 요약은 <표 7>과 같다. 그런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 값은 2.046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아니었다. 결국 어머니에게 있어서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자녀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은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그림 4> 어머니의 자녀폭력에 대한 경로모형 I



<표 7> 어머니의 경로모형 I에 대한 모델 요약

(N = 740)

F	2.046
Sig.	.058
R <sup>2</sup>	.019
Adjusted R <sup>2</sup>	.010
Std. Error of the Estimate	.4922
통계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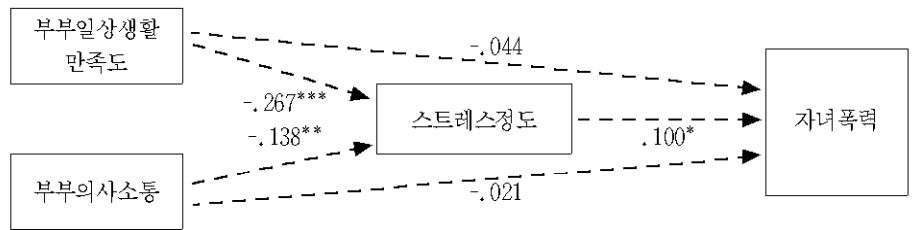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이번에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모형을 어머니의 경우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역시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스트레스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회귀분석하였다.

어머니에 있어서 부부일상생활만족도( $P < .001$ )와 의사소통( $P < .01$ )은 각각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일상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의사소통이 잘 안될수록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정도 역시 어머니의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는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자녀폭력발생은 낮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어머니의 자녀폭력 경로모형 II를 그려 보면 <그림 5>와 같다.

<표 8>은 어머니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모델에 대한 요약이다. 모델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2.5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P < .05$ ), 어머니의 자녀폭력을 설명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면, 어머니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만이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의사소통은 자녀폭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림 5> 어머니의 자녀폭력에 대한 경로모형 II



〈표 8〉 어머니의 경로모형 II에 대한 모델 요약

(N = 740)

F	2.518
Sig.	.015
R <sup>2</sup>	.027
Adjusted R <sup>2</sup>	.016
Std. Error of the Estimate	.9560
통계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 P&lt;.05, \*\* P&lt;.01, \*\*\* P&lt;.001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이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곧 그러한 스트레스는 자녀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와는 달리 어머니의 경우 가설 2가 지지되었다.

## 5. 결 론

본 연구는 자녀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족체계적인 관점에서 부모 요인에 대해 밝힘으로써, 자녀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근거를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녀폭력의 원인을 부부관계와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자녀폭력의 주체자인 부모가 인지하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스트레스 정도가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밝힘으로써, 자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접근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을 검증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각각이 자녀폭력에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부부의사소통 각각이 아버지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스트레스 정도는 자녀폭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버지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나 부부의사소통이 아버지가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자녀폭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스트레스 정도 역시 자녀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부부일상생활만족도 및 부부의사소통 각각이 자녀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일상생활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의 자녀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에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개입의 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자녀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치료 또는 부부치료를 통해 부부관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경우 부부관계가 궁극적으로 자녀폭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부부의 일상생활만족 정도가 낮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가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자녀가 폭력의 피해를 경험할 위험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자녀폭력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개입할 때 부부일상생활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사분담과 자녀양육방식, 금전관리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 그리고 원가족 및 개인 생활에 대한 배려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부부의사소통 방식으로부터 상호존중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실천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녀폭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로부터, 자녀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머니들에게 강조되는 개입

으로, 부부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이 자녀폭력으로 발전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셋째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자녀폭력으로 발전되는 양상이 적다는 것이지 아버지에 의한 자녀폭력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들에게는 또 다른 변인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 유지, 폭력에 대한 왜곡된 태도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집착 등이 그 주요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그동안 자녀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인 부, 또는 모와 피해자인 자녀와의 일대일 관계성에 주목하여 왔다. 물론 부모-자녀관계 개선 등이 자녀폭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자녀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치료, 또는 부부치료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사회복지 실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김광일. 1986.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서울 : 탐구당.
- 김광일·고복자. 1987. “아동구타의 발생률 조사,” 《정신건강연구》, 6호. pp.66~81.
- 김유진. 1999. “부부의사소통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재엽. 1996. “한국가정폭력의 실태 및 원인분석과 통합적 치료 모형 개발에 관한 학제간 연구(1차년도 - I),” 학술진흥재단. (미간행 보고서).
- \_\_\_\_\_. 1998(a). “한국 가정의 미성년 자녀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6호, pp.41~64.
- \_\_\_\_\_. 1998(b).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0집, 2호. pp.115~139.
- 김재엽·정소연. 1997.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pp.71~91.
- 김재엽 외. 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박미경, 2000. “부부갈등 및 아동학대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기성인기의 친밀한 대인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안동현, 2000. “학대로 인한 심리적 특성 및 접근방법-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한국이웃사랑회 사업연구집 3, pp. 138~151.
- 안혜영, 1998.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측 모형,”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장화정 외, 2000.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의 관계,” 《가정내 위기와 아동학대》, 한국이웃사랑회 사업연구집 3, pp. 14~48.
- 조미숙, 1998.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사회 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9. 《아동학대 - 한국의 현황과 치료·개입》, 서울: 한국아동 학대 예방협회.
- Burleson, B. R. and Denton, W. H.,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pp. 884~902.
- Deutsch, M. A., 1980. *Who Abuses and Who Does Not: A Social Competence of Child Abuse*, University of Maryland at Baltimore, DSW.
- Gil, D. C.,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pp. 637~648.
- Helfer, R. E. and Kempe, C. H., 1972.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 Kempe, C. H. et al., 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 July, pp. 17~24.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ruary.
- Straus, M. A. and Gelles, R. J.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 Whipple, E. E. 1989.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University of Washington, PH. D.



##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Couple Life,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Stress on Battering Child

Kim, Jae-Yop (Yonsei University)

Kim, Hee-Soo (Researcher at SWRC at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marital factors which relate to the child abuse. We mainly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satisfaction of couple life, communication on battering child, and we also test mediating effect of the level of parents' stress.

The major outcomes of the study are following.

In case of father, the satisfaction of couple life, communication do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battering child. And the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fathers' stress. But the level of fathers' stress does not influence on battering child.

In case of mother, the satisfaction of couple life and communication don't explain the child abuse. But the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level of mothers' stress, and it als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battering child.

These findings show that family therapy or marital therapy which focuses on enhancing the satisfaction of couple life and improving the way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s needed to reduce the child abuse. To the mothers, a stress management program can also be effective.